Financial Daily

meritz 메리츠증권

2025. 12. 2 (화)

금융 Analyst 조아해 like.cho@meritz.co.kr
RA 공건희 kunhee.kong@meritz.co.kr

News

금융위서 뒤집힌 홍콩 ELS 1차 제재..과징금 대폭 줄어드나

머니투데이 https://zrr.kr/XGloCF

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(ELS) 1차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폭 감경
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구제 여부를 감안하겠다고 한 만큼 '본게임'인 2조원대 과징금 제제 수위도 최종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

기업대출〈주담대, 저신용자〈고신용자…금리 왜곡 심화

아시아경제 https://zrr.kr/qveOXe

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기조인 '생산적 금융'과 '포용금융 확대'로 금리 왜곡 현상이 심화
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, 통상 담보물이 확실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주택담보대출보다 기업대출 금리가 더 저렴한 이례적 현상

금리 3%대 회복에 정기예금 한달새 6.4조 '쑥'

아시아경제 https://zrr.kr/1HFggo

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11월 말 기준 971조9897억원으로, 전달(965조5689억원) 대비 6조4208억원이 증가
증시 활황 속에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'머니무브'가 가속화되자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렸고, 시중은행에서도 3%대 예금 상품이 부활한 것에 기인

연임 코앞? 실적과 전략에도 흔들리는 금융지주 수장

한경거버넌스 https://zrr.kr/61L2uP

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금융지주 '1호 인선'인 데다 신한·우리금융 등 핵심 금융지주 수장의 연임 여부가 걸린 만큼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모습
이전 정부에서처럼 노골적인 외풍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정권교체기마다 관치 논란이 반복됐기 때문에 금융권은 긴장

정부, 의무공개매수제 '50%+1주'보다 기준 상향 가닥…자사주 소각과 함께 논의

매일경제 https://zrr.kr/wwjYC0

정부가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안보다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
전체 지분의 과반 최소 지분(50%+1주) 이상을 확보하는 방식보다는 비율을 상향하되, 지분 100%를 공개매수 하는 방식보다는 낮게 중간점에서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

서학개미 '톱픽' 레버리지 ETF도 규제하나…정부, 증권사 특별점검

한국경제 https://zrr.kr/IEldCz

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까지 증권사의 고위험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(ETF)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활동을 점검
외환당국이 서학개미(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)를 원·달러 환율을 끌어올린 주체 중 하나로 지목한 가운데, 증권사를 통한 해외투자 규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

금감원, '삼성생명 일탈회계' 중단 결론…"소급적용은 안해"

뉴시스 https://zrr.kr/IzOzCN

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허용해 온 '일탈회계'를 중단하기로 결론
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

메리츠화재, 초박빙 실적 격차에 보험료 인하 승부수

보험매일 https://zrr.kr/2DBNev

메리츠화재 올해 4분기 실적에 따라 업계 1위 자리를 꿰차는 만큼 연말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
주력 장기인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최대 18% 인하, GA 채널에서 타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

與"10일까지 정부안 가져와라" 스테이블코인 입법 '최후통첩'

매일경제 https://zrr.kr/qs7gVr

'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(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)'과 관련해 여당은 금융당국에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'최후통첩'을 보낸 상황
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,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

원화 스테이블코인, '은행 지분 51% 컨소시엄'으로 가닥

머니투데이 https://zrr.kr/WdLjXB

당정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'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' 형태로 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컨소시엄에서 은행 비율을 51%로 잡는 구조
은행 지분 51% 컨소시엄 구성은 그동안 한은이 주장해 온 내용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